

ILO 100년의 정신과 일의 미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는다.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ILO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를 설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Work for a Brighter Future)』이라는 보고서(이하 일의 미래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백 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은 더없이 적절하다. 이를 기반으로 6월 총회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 버금가는 ‘선언’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는 일의 미래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를 경청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잔혹하고 거대한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ILO는 탄생했다. 1919년 설립 당시 채택한 ILO헌장은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불의와 궁핍을 초래하는 근로조건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는 정의롭지 않은 변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고, 이 정신을 바탕으로 ILO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을 통해 인류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원칙을 천명하였다. ‘자유, 존엄, 경제적 안정, 평등한 기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와 국제기구의 책임이라고 명시하였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면서 오랫동안 인류의 나갈 길을 인도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오늘날까지 조금도 빛이 바래지 않았다.

ILO가 천명한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데, 이를 실현해야 하는 환경조건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술, 기후,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에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도전이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대표되는 기술변화는 조만간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범용기술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산업시대가 된다는 것은 곧 노동 과정과 노동조직, 그리고 노동조건이 모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 플랫폼기업을 통한 일감 분배, 그리고 인공지능의 설계에 따라 파편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사유와 행위의 결합이라는 노동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다. 전통적인 형태의 종속적 임금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지칭하고, 이런 노동을 하는 자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면 ILO가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자영업 노동뿐 아니라 생산적 무급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으로 인정받는 활동의 외연은 확대되어야 한다. 일의 미래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인식하에서, 인간능력과 노동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10가지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이 의제들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각 주체들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 두 가지 메시지가 분명하다. 첫째,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제도를 심분 활용하고 확장하여,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보편적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선언에 나타난바, 노사정 대표가 동등한 지위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정신을 계승하면서 주체의 범위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간 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의 미래 보고서가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적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

로서의 참여와 국제협력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지 않는 것이 없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행보를 결정해 나갔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을 적어본다. **KL**